

여자배구의 미래, 프로·실업 상생에 답있다

김중건 전문기자의 V리그 레이다

양산시청, GS칼텍스에 센터 정지윤 조건없이 내쫓고 고교 졸업 후 프로팀 못 가면 암담...저변 확대 절실 FA 유광우 1차 협상서 3억5000만원 삼성화재 잔류 배구협회 임태희 회장 사퇴로 배구회관 문제 새 국면

새로운 시즌을 향한 V리그 팀들의 재정비가 한창이다. FA 선수 1차 협상은 10일 오후 6시로 마감됐다. 아직은 잣대 속의 태풍이다. 2차 협상은 20일 오후 6시까지다. 여자부 흥국생명, GS칼텍스는 양산시청에서 정지윤을 긴급 수혈해 챔피언까지 차지했다. GS는 이숙자가 은퇴해 정지윤이 계속 필요했다. 최근 양산시청과 협상을 마쳤다. 양산시청은 조건 없이 보내졌다. 베테랑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프로 무대에서 뭉치기 기회를 열어준 결정타로 박수를 보내지만 생각해볼 여지는 많다.

●프로와 실업배구의 상생, 이제는 생각해야 할 때

GS칼텍스가 베테랑 센터 정지윤과 2014~2015시즌 계약을 맺는다. 2013~2014시즌 이나연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GS칼텍스는 양산시청에서 정지윤을 긴급 수혈해 챔피언까지 차지했다. GS는 이숙자가 은퇴해 정지윤이 계속 필요했다. 최근 양산시청과 협상을 마쳤다. 양산시청은 조건 없이 보내졌다. 베테랑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프로 무대에서 뭉치기 기회를 열어준 결정타로 박수를 보내지만 생각해볼 여지는 많다.

그동안 몇몇 프로팀에서 실업팀 선수를 데려갔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업팀의 불만은 크다. “필요할 때는 땀흘려서라도 선수를 데리고 가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 버리는 행태”라고 분개했다. 고교팀에게는 신인 드래프트 뒤 지

●남자부 2014 FA선수 1차 협상 결과

선수(팀)	포지션	1차 협상 결과	연봉 변화
유광우(삼성화재)	센터	계약완료	2억원~3억5000만원
황동일(삼성화재)	센터	계약완료	1억1500만원~1억1500만원
박종영(현대캐피탈)	리베로	미계약	
김민욱(대한항공)	라이트	미계약	
김형우(대한항공)	센터	계약완료	3000만원~7500만원
최부식(대한항공)	리베로	미계약	
송병일(우리카드)	센터	미계약	
방신봉(한국전력)	센터	미계약	



삼성화재 유광우 현대건설 영혜선

원금을 주지만 실업배구팀은 아무런 혜택도 없다. 프로팀이 하는 이유로 마음대로 실업팀에서 선수를 빼가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육성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 현재는 신인선수들에게 계약금도 주지 않고 학교에만 지원금을 쥐적락 중요한 선수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권리가 없는데도 계약기간은 프로팀이 마음대로 정하는 시스템 때문에 김연경 파문 같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여자부 2014 FA선수 1차 협상 결과

선수(팀)	포지션	1차 협상 결과	연봉 변화
나현정(GS칼텍스)	리베로	계약완료	5500만원~7500만원
정대영(GS칼텍스)	센터	미계약	
한승이(GS칼텍스)	레프트	계약완료	1억5000만원~1억8000만원
남지연(IBK기업은행)	리베로	계약완료	1억1500만원~1억5000만원
이효희(IBK기업은행)	센터	미계약	
이재은(KGC인삼공사)	센터	계약완료	7500만원~8400만원
김해란(도로공사)	리베로	계약완료	1억1700만원~1억8333만원
최윤옥(도로공사)	센터	미계약	
황민경(도로공사)	레프트	계약완료	8300만원~7800만원
김수지(현대건설)	센터	미계약	
영혜선(현대건설)	센터	계약완료	9000만원~1억5000만원
윤혜숙(흥국생명)	레프트	미계약	
주예나(흥국생명)	레프트	계약완료	5500만원~7500만원

* 추후 일정=2차 협상(5월11일~5월20일) 3차 협상(5월21일~31일)

현재의 시스템은 프로구단이 드래프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수의 모든 권리를 구단이 가져간다.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한계의 여고팀과 선수들 탈출구가 없다

현재 여자부 실업팀은 7개다. 양산시청을 시작으로 수원시청, 포항시, 대구시,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체육회 팀이 있다. 이 가운데 몇몇은 전국체전용으로 대회를 앞두고 선수를 임시로 모아 경기에 참가할 뿐이다. 예상치도 선수들이 훈련하는 팀은 양산시청 등 4팀뿐이다. 숙소가 없어 서울과 경기도 인근의 여고팀 체육관에 모여 부정기적으로 훈련하고 경기만 하는 지방 팀도 있다. 대우도 그리 좋지 않지만 프로팀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프로 구단은 “선수들이 조금 힘들면 쉽게 배구를 포기한다”

프로야구 기록실 <12일>

●팀순위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	연속	타율	방어율	홈런	득점	실점	홀런	도루	실책
1	롯데	34	21	13	0	0.618	-	1승	0.284	5.01	0.556	192	185	47	26	23

●Before & After 7-Game

팀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20일
삼성	○	○	○	○	○	○	○	○	○	○	○	○	○	○

●팀간승패-남은경기

팀	삼성	두산	LG	넥센	롯데	SK	NC	KIA	한화
삼성		1-0-4	3-0-0	2-0-1	1-0-2	4-0-2	4-0-2	1-0-1	1-0-1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득점률	OPS
1	이재원	SK	0.462	29	91	42	4	14	23	1	10	19	0	0.320	1.216

스포츠토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부문별 베스트 5

출신	타점	득점	최다 안타				
① 박병호(넥)	14	① 히메네스(롯데)	31	① 박병호(넥)	33	① 손아섭(롯데)	52

●메이저리그 <12일>

순위	동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중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서부지구	승	패
1	볼티모어	20	15	1	0.569	디트로이트	21	12	1	0.636	오슬랜더	23	15

●제68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12일>

●경기결과

팀	1	2	3	4	5	6	7	8	9	R
대구고	1	0	0	1	0	0	0	1	1	4

●일본프로야구 <12일>

●센트럴 리그

순위	팀명	승	패	무	순위	팀명	승	패	무
1	요미우리	24	13	0	1	오릭스	23	12	1

●프리미어리그 <12일>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순위	팀	득점	
1	맨체스터시티	38	86	27	6	5	① 수이레즈	리버풀	31

●NBA <12일>

●경기결과

팀	스코어	팀	스코어		
LAC	101 - 99	오올라호마	인디애나	95 - 92	워싱턴

고 말하지만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선수들의 프로의식도 생기지 않는다. 여자대항팀도 5개 팀 밖에 없다. 최근 한 대학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여고 선수들이 프로지명을 받지 못하면 실업팀이나 대학팀으로 가는 길이라도 많아야 하는데 그 길마저 좁다. 갈수록 여자배구 저변이 좁아드는 이유다. 선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실업팀에게 배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다.

●FA 1차 협상 마감

관심을 모은 FA 1차 협상이 10일 오후 6시로 마감됐다. 남자는 8명 가운데 3명이 원소속 팀과 협상을 마쳤고 여자는 13명 가운데 8명이 1차 계약을 완료했다. <표 참조> 이번 FA협상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삼성화재의 유광우는 3억500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대한항공 한선수가 받았던 5억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셀러리캡 소진율이 한계에 다다른 팀 행면 때문인지만 유광우가 삼성화재에 잔류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여자는 현대건설이 센터 영혜선을 주저앉히는데 성공했다. 국영준 사무국장이 영혜선의 고향 목포까지 찾아가서 공을 들인 끝에 1억5000만원에 도장을 받아냈다.

●임태희 회장이 사퇴 표명면 대한배구협회의 앞날?

대한배구협회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연다. 임태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배구회관 구입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종경 전무를 통해 사임의 뜻을 전했고 회장단은 이의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문제는 임 회장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는 점이다. 배구회관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는 배구인들의 인식이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말을 예상 못하게 만든다. 특히 회관 구입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일 때 나왔던 한 인사의 '문제가 생기는 책임이 되겠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도 중요해졌다. 과연 그 발언이 진인지, 만일 진이라면 그 발언을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배구인들이 피담뽀러 모이놓은 기금이 사라져버린 현실 때문에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오늘의 프로야구 <13일>

롯데	LG	두산	SK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SPOTV 2, KNN-R, 부산MBC-R	(미방송)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미방송)

스포츠토도 오늘의 토도 <13일>

●아구토도 스포츠+ 15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	경기시간	홈 vs 원정	경기장소	중계일정
1	05.13(화)	09:10	휴스턴A vs 텍사스	미니타메이디움	-

●경기종합 <12일>

●제 69회 전국 대학 야구선수권대회(남해스포츠파크)

●제 69회 전국 대학 야구선수권대회(남해스포츠파크)